**중 국 조 경 사**

▶ 중국 조경의 공간구성 원리

1. 자연에 근원을 두고 자연을 초월

• 비록 자연풍경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원림 경관은 오히려 모범으로 삼은 자연풍경을 제고하고 승화시킴 – 첩산과 물의 처리

1) 첩산 : 唐대 이전에는 대체로 토석산 축조 위주

唐,宋대에는 천연석을 대량으로 사용하여 산을 만듦

[원야] 묏부리는 오로봉과 같이 허허롭게 세워져야 하며, 연못은 사방으로 통해야 한다.

아랫부분에는 골짜기가 놓이고 윗부분에는 누대가 놓여야 하며, 동쪽에는 정자가 설치되고 서쪽은

사(榭)가 설치되어야 한다.

2) 물의 처리 - 사람이 만든 것이로되 마치 자연스럽게 파여진 것

ⓐ 비교적 큰 수면 : 반드시 작은 섬 쌓고 평교가설

ⓑ 큰 규모의 수면 : 제방을 구불구불하게 축조, 여러 섬들을 배열

산과 물은 허실(虛實)과 융합의 태극관계(太極關係)

즉, 자연계 산수풍경의 전형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음양(陰陽)상생(相生), 대립(對立)통일(統一)의 처리를

구현해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됨

→ 북경의 황가원림 이화원이 전형적인 실례

2. 건축물의 조경작용 중시

• 건축물을 경관의 중요한 장식으로 삼아 하나의 경관구역 내지는 전체 원림의 구도 중심으로 만듦

• 건축물을 풍경감상의 장소로 삼음

• 건축물을 산,돌, 화목과 결합하여 원림공간을 형성하거나, 건축을 이용하여 정원공간을 형성

• 건축물로서 천연산수지형의 결함을 감싸고 보충

[원야] 집은 반드시 고상해야 하며 창문 밖은 넓게 트여, 드넓은 바다의 파도와 사계절의 눈부시게

아름다운 경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 독특한 건축형상 및 세부처리

- 회랑 : 본래 건축물연결, 공간구분기능이나 원림에서는 수랑, 유랑 등을 설치

건축물이 밀집되어있어도 사람들로 하여금 건축공간안에 한정되어 원림을 감상할 수 없도록하고, 비록 건축물이 있다해도 오히려 도처에서 대자연의 생기가 충만하다.

중국 원림의 조화의 미는 천인합일의 처리를 반영, 도가의 대자연의 태도(행하되 지속하지 않고, 소유하되

주재하지 않는다-노자)를 구현

3. 풍부하고 다양한 원림공간의 조성

1) 원림 간의 공간 사이는 대경(시선이 막힘이 없이 보이도록 조성)과 장경(시선을 차단시키거나

다른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조성)으로 연계성 형성

2) 유람감상의 노선은 종종 공간을 분리시키거나 연결시켜 조직적으로 점진적인 서열을 형성

3) 공간의 폐쇄감을 피하기 위한 방법

ⓐ 건축물의 한쪽 면 개방

ⓑ 서로 인접한 공간의 경관을 끌어들이기

ⓒ 건물의 문과 창, 벽에 설치된 누창과 동문, 산석의 활구 등을 통해 서로 유통

- 누창 : 창틀에 다양한 문양의 장식이 달려 밖을 내다 볼 수 있도록 만든 창

- 동문 : 다른 공간과의 통로 지점에 설치한 문-다양한 형태로 경관틀 역할

- 활구 : 넓게 트인 골짜기

ⓓ 차경 : 원림 밖의 경관을 경관의 일부로 취급

[원야]-평범한 것은 버리고 우수한 것을 받아들이는 원칙을 세워 차경의 중요성 강조

: 원차(멀리 떨어진 경관), 인차(인접경관), 앙차(원림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올려봄),

부차(원림내 높은 곳에서 외부의 낮은 곳 내려봄), 응시이차(일년 중 특정한 계절 혹은 특정한 날의

순간적인 기상변화, 식물의 변화 등을 차경)\_함께 나타남

4. 농후한 시정화의의 구현

1) 문인과 화가들이 대부분 원림의 계획과 설계에 참여

- 당의 왕유,백거이, 유종원, 송의 사마광, 명의 미만종, 청의 엽변, 이어

2) 시화의 의미를 원림 속에 융합시켜 원림 경관에서 회화의 매력을 표현

3) 대자연을 개괄하고 승화한 산수화(사의치중)를 3차원의 입체형식으로 재현

4) 경명, 편액, 대련 등을 이용하여 문학수단이 원림 경관에 직접적인 주제를 정하고 극단적으로 간결하고

정제된 문자로 경관의 진수가 있는 곳을 나타냄

5. 우의와 상징성

1) 우의 : 여러가지 연상을 일으키며 마음속에서 이미지의 경계 즉 경관 밖의 경관

ex) 양주의 사가원림 개원 – 춘하추동을 연상케하고자 4개의 가산

승덕의 황가원림인 피서산장 – 산악,평원,호수의 3가지 경관구역으로 이루어짐

2) 문학적인 수단 – 편액, 원림이름, 경관제목

3) 신선사상의 삼신산 상징

ex) 이화원(3개섬), 원명원(9개섬) : 천조황제의 절대권위선양

▶ 원림의 유형

1. 황가원림(왕실원림)

• 규모가 크고, 부지선택이 자유로움

• 건축물이 대칭 이루고 화려 → 왕권 상징의도

• 전체적으로 강남원림의 시정화의를 받아들이고자 했음

2. 개인원림(사가원림) – 북방원림(북경), 강남원림(장강하류), 영남원림(주강)

• 전체적인 배치는 비대칭

• 자연을 모방하여 천연의 미 추구

• 도시 내의 그윽하고 조용한 곳을 선택하여 지음

• 주택에 살면서 경관 감상

3. 사묘원림

• 주지의 처소, 일반적인 종교성지 전체를 가리킴

• 사관주위의 자연환경과 사묘건축, 종교건물, 인공자연, 천연자연의 종합체

•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곳이면 어디든지 퍼져있음

• 건축물 : 유가문화, 원림부분: 도교문화

▶ 중국 조경의 흐름

1. 선진 - 생산과 삶의 편의위해 최소한의 인공을 가함

2. 진한 - 생산위주에서 휴식, 오락, 관상의 건축물 등장

3. 위진남북조 - 정치적혼란, 사회적 불안(도교, 불교사상영향)

4. 수당 - 원림전성기, 당시대에 시정화의의 특징이 나타남

5. 송 - 원림성숙기, 문화예술이 뛰어나 시문과 회화예술이 당대를 뛰어넘음, 원림에 주관적인 감정과

사상을 이입하는데 주력

6. 원 - 문인화발전, 화가들의 조원활동참여, 회화의 기법쓰임, 소주원림 양적 질적 성장

7. 명- 개인원림 발전

이유 ; ① 사대화가(심주, 문징명, 당인, 구영)의 출현

② 조원이론서(계성의 원야, 문진형의 장물지)와 조원전문가의 등장

8. 청 - 과도한 형식과 기교의 추구 : 건축물 밀도 높임, 산석의 사용량 증대

→ 형식주의로 흐르게 하였고, 이론탐색이 정체상태로 이론저술이 없다.

문자기록이 존재하는 최초국가 : 은나라 – 국가기관 성립

[시경]: 주의 문왕이 유(囿)에 유람

\* 중국 전통원림

ⓐ 유(囿) : 연못조성, 인공동산을 쌓는 시작

ⓑ 대(臺) : 중국 원림건축의 최초형식으로 대위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발전

정리 : 유(囿)는 수렵이 주요기능이기도 하지만 제사와 대자연의 미를 즐기기 위한 것도 주요한 목표

유(囿)는 제왕들이 일반적으로 조성하는 원림 중 전형적인 형식이 되었음

(1) 고대의 조경문화

■ 진 시대 (B.C 249~B.C207 )

① 진시황(천하 통일)

㉠ 기원전 221년 6국을 멸하고 중국 역사상 첫 번째 중앙집권적 국가 건립

㉡ 대규모 건축 활동 시작

㉢ 아방궁 축조 : 동서 500보, 남북 50장이나 되는 대건축물. 주변의 이궁과 별관은 골짜기와 산을 넘어

연도로 연결. 궁· 전· 루가 300여리에 이르는 대규모

㉣ 만리장성 축조

㉤ 여산릉 : 진시황의 묘

㉥ 난지궁(蘭池宮)과 난지(蘭池) 조성: 진시황 31년. 동서200리, 남북20리나 되는 큰 연못.

그 속에 섬을 쌓아 봉래산으로 삼고 돌을 다듬어 200길이나 되는 고래(鯨) 석상을 만듦.(도교 원림에

관한 최초의 묘사. 신선사상의 영향, 불로장생 희구)

※ 유적이나 유구는 전혀 남아있지 않고 기록으로만 전함

■ 한 시대 (B.C 206~ A.D 220 )

① 도시의 규모는 크고 넓으며 궁전과 원유는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워짐.

㉠ 상림원

ⓐ 무제가 기원전 138년에 꾸밈

ⓑ 장안에서 서쪽 10km정도 떨어진 곳에 조영, 이궁이 70여채, 각지에서 헌납해 온 회목 3,000여종

식재, 백수(百獸)를 방사하여 황제의 수렵장이 되기도 함

ⓒ 곤명호, 곤영지, 서파지 등 6대호 를 조영

ⓓ 곤명호(BC 119) →주위 20km가 넘음. 동서 양쪽 물가에 은하수를 비유하는 석상, 호수 가운데

돌고래상(길이 7m) 배치

㉡ 태액지원

ⓐ 건장궁의 북쪽에 위치.

ⓑ 장안의 건장궁 내의 곡지(曲池)중 하나, 태액지(북쪽), 당중지(남쪽)

ⓒ 봉래, 방장, 영주, 호량의 4개의 선도를 축조. 물속에 청동이나 대리석으로 조수(鳥獸)와 용어(龍魚)의

조각을 배치 → 도교, 신선 사상을 반영

② 개인 주택 정원

㉠ 개인주택의 정원이 일반화 됨

㉡ 거상 원광한의 원림

ⓐ 장안 가까운 곳에 축조

ⓑ 자연스러운 산수경원(이런 양식으로 최초의 것)

ⓒ 정원 속에 회랑과 중루(重樓: 2층 이상되는 누각), 산석과 연못. 짐승과 꽃과 나무

ⓓ 물을 끌여 격류를 만들고, 암석을 쌓아 올려 10여장이나 되는 산을 수 리에 걸쳐 만듦.

ⓔ 진조기수(珍鳥寄獸) 사육. 기화이초,

ⓕ 건축은 옥과 각을 즐비하게 지음.

③ 한시대의 건축적 특색

㉠ 토단을 작은 산 모양으로 쌓아 올려 그 위에 건물을 지음

㉡ 위의 건물보다 더 높게 지어진 건물을 대(臺)라고 함

대(臺) : 주(영대), 진(홍대), 한(점대, 백량대, 통천대, 신명대)

ⓐ 점대 : 태액지내, 높이가 열길

ⓑ 백량대 : 천로를 받는 승로반

ⓒ 통천대 : 감천원내, 천신에게 제사 지내던 곳, 천로를 받는 승로반을 든 선인상이 있다.

ⓓ 신명대 : 건장궁내, 신선을 모시는 곳, 승로반을 든 선인상

ⓔ 오치 : 천신에게 제사지내는 다섯 개 기둥으로 된 제단. 다섯개 기둥은 다섯색으로 구성

㉢ 관(觀) :궁전내의 경관을 조망( 임고관을 비롯하여 높이16~ 17장에 이르는 관이 9개)

→ 한나라 때 이미 자연의 경관을 본떠 정원을 꾸미고자 하는 사상이 일반화 되어감

■ 진(晉)시대 (265~419)

진의 대표적 인물로는 書: 왕희지(난정고사), 詩: 도연명, 畵: 고개지

→ 왕희지, 도연명 등은 조경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① 왕희지의 난정고사 : 난정고사에 의하면 음력 3월 3일에 문사들이 구불구불 구비져 (소흥지역) 흐르는

유수에다 술잔을 띄워 그 술잔이 자기 앞에 이를 때까지 시를 짓고 술잔을 들어 마시며 노는 풍류놀이를

곡수연이라 하고 이 목적을 위해 곡수거를 만듦.

② 도연명의 안빈낙도 철학 : 조경과 관련 있는 시문

㉠ [음주]라는 시의 : “채국동리하” 라는 구절

→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조선의 시인， 문인들이 많이 인용

정원 동쪽 울타리에 국화를 심기도 함

㉡ 오류선생전

㉢ 도화원기

㉣ 귀전원거, 귀거래사 등의 많은 시문이 자연과 전원 속에서 안빈낙도 생활을 찬양하고 있고, 이것이

후세의 선비의 시, 문 또는 그들의 경원에 그대로 구현됨.

■ 남북조 시대(421~581AD)

① 남조의 금원 : 수도 건강지방의 화림원 이라는 금원을 유지 경영

② 북조의 금원

㉠ 화림원(북위) : 낙양성에 있던 것을 복원하여 유지함. 양현지의 “낙양가람기”에 그 모습이 묘사됨,

봉래산, 선인관, 조태전, 홍예가 있음 - 신선사상을 배경으로 한 듯

㉡ 화림원(동위 시대) : 동위가 남성 천도 후 꾸민 금원을 유지 경영

■ 수 시대(589~617AD)

① 2대 양제 : 남북을 연결하는 대운하 완성,

낙양에 성을 축조하여 수 만호를 이주시켜 수도를 번성하게 함.

즉위하면서 현인궁을 조영-바다의 기금이수와 초목류를 모아 궁원을 꾸밈.

『대업잡기』에 그 기록이 있다.

② 현인궁(2대 양제 조영) : 궁궐 안에 진목(珍木), 기암(奇巖), 금수(禽獸)를 가져다 놓음.

*대서원* 등 많은 궁전, 누각 지음

대선원 → 16원이 있고 교석으로 가산을 축조함. 못을 파서 해중에 **봉래, 방장, 영주**의 3선도 축조. 그 위에 대와 회랑을 만듦.

■ 당 시대(618~906 AD)

① 황가원림

㉠ 장안성

㉡ 장안의 3원 : 서내원, 동내원, 대흥원

㉢ 이궁

ⓐ 홍경궁 : 방지와 못가에 세워진 용당으로 이루어지는 지원

\*용지(龍池) : 큰 연못으로 호반에는 용당과 침향목으로 지어진 침향정이 있음.

ⓑ 온천궁(=화청궁) : 현종때 화청궁으로 개명, 제왕의 청유

현종과 양귀비의 환락의 장소(호화로움의 절정). 이 모습은 백락천의 “장한가”에 묘사.

백락천(백거이)의 [백목단, 동파종화] - 당대정원묘사

장생전을 비롯한 전각과 누각이 세워져 산의 모습이 바뀔 정도

ⓒ 구성궁 : 산이 9중으로 겹쳐 보인 데서 유래, 구양순이 『구성궁 예천명』에서 묘사

ⓓ 취미궁 : 온천궁을 창건한 태종이 태화궁의 유적에 지어 그 전체를 궁원으로 삼음

ⓔ 대명궁원 : 장안성의 동북쪽에 위치, 함원전, 선정전, 자신전, 인덕전(경회루와 같은기능)을 비롯한

여러 누각이 있음. **태액지를 중심**으로화려한 정원 조성 → 663년 증축 후 당대의 정치 중심이 됨

㉣ 동부 낙양의 궁원 : 당 시대 말 낙양은 문화 예술의 도시로 발전했으며 별장이 많았고 원유도 많이

꾸며졌다.

② 사가원림

㉠ 이덕유의 평천산장 – 무산십이봉, 동정포9파 (자연경관 모방)

[평천산거 계자손기]에 “평천산장을 팔아먹는 자는 내 자손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길정도로 아름다움 → 양산보도 소쇄원작정시

㉡ 백거이(=백락천)의 원림 생활

ⓐ 백거이(772~846): 당시대의 정원을 가장 잘 묘사함

ⓑ 최초의 조원가, 애원가, 전원 시인

ⓒ [장한가 : 온천궁의 모습 묘사], [지상편 서문], [동파종화] 같은 시에 당시 정원을 가장 잘 묘사.

중국 조경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

ⓓ [백목단] : 白牧丹(모란)을 안뜰에 심어 혼자 감상한다는 내용의 시. 이 시에 원자(院子)에 대한

기록이 나옴. 정원 뿐 아니라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원자에도 화훼류를 가꿈.

※ 원자(院子) : 건축물 사이에 자리잡은 공간, 화초류를 가꾸던 곳, 이 원자에다 강남에서는 전정이라

하여 전돌을 깔아 놓았다. 이와 같은 수법은 당 이전에도 있었을 듯 하나 [백목단]에서 명백히 밝혀짐

(2) 중세의 조경문화

■ 북송 시대(960~1126 A.D)

① 시대배경

㉠ 문학 : 구양수, 소식, 왕안석 등의 문장가

㉡ 유학 : 불교나 도교의 영향을 받아 정신이나 우주와 인성에 관한 연구

㉢ 남송 : 태호, 심양호, 동정호 같은 큰 호수주변에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 많음

수려한 산수 경관을 찾아 별장, 저택을 짓고 부지안에 지, 산을 만들고 괴석 도입.

모방보다는 수경에 더 비중을 둠. → 주밀의 [오홍원림기]

㉣ 북송 - 남송과는 자연조건이 달라 명산, 호수를 모방하는 조경수법 사용

② 금원

㉠ 4원(園) : 경림원, 금명지, 의춘원, 옥진원(후에 폐지되어 **경림원**과 **금명지**만 남음)

\* 경림원 : 금명지와 마주보고 위치. 운로가에는 노송, 고백이 우거지고 석류원, 앵도원 등의 화원.

정사가 지어져 유람객을 위한 술집이 영업됨. 양춘이월에 일반에게 공개되고 3월상사에 황제가 왕래한

다음 폐쇄됨.

㉡ 화취망 : 원의 동남쪽에 만들어진 구릉. 거암을 앉혀 「부석신운만세봉」「옥경독수태평암」이라 명명.

연못주위에 석난간을 두름

㉢ 만세산(간산)원 : 휘종이 세자를 얻기 위해서는 경도에 가산을 쌓아 사기를 막아 야 된다는 말을 믿어

오나라의 조경가인 ‘주면’에 의뢰하여 설계에는 항주의 봉화산을 닮은 산을 만들어 만세산이라 이름

지었으나 뒤에 간산이라 개칭. 이곳에 쓰인 돌은 태호석임

※ 태호석 : 가장 큰 바위를 이름. 강남에서 주로 나는 석회암의 일종.

태호석을 북송의 만세산까지 운반하는 데 예인선인 화석강을 사용.

※ 태호석 미적 구분 기준(원야) : 루(漏) – 돌의 표면에 상하좌우로 구멍이 나있는 형상

투(透) - 돌의 뒷면을 바라 볼 수 있도록 구멍 나있음

수(瘦) - 입석의 형상이 홀쭉하고 길어 말라보이는 형상

추(皺) – 돌의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생긴 형상

③ 범상정의 [곡수유배거]

유배거 : 5m 가량의 방형지. 10.5m의 곡수거, 외곽은 대리석은 전을 口자형으로 함

④ 경원에 관련된 문헌

㉠ 이격비의 [낙양명원기] : 낙양지방의 명원 10곳 소개(사대부정원), 화원의 성격이 강한 정원 소개

석가산의 기록이 전혀 없음

㉡ 구양수의 [취옹정기] : 시골에서의 산수생활을 표현한 것

㉢ 사마광의 [독락정기] : 낙양에 600평을 사서 독락원을 꾸미고, 유유자적 하였음.

그의 은거생활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

㉣ 주돈이 (자:무숙, 호:염계)의 [애련설]

ⓐ 주돈이가 연꽃을 군자에 비유, 예찬한 글.

황정견은 그를 “흉회쇄락 여광풍제월”이라 비유 \_ 소쇄원의 광풍각, 제월당

ⓑ 애련설에서 국화 [은일자], 모란[부귀자], 연꽃[군자]라 함

ⓒ 애련설은 유학자, 선비들에 영향을 줌, 경원의 주요한 사상적 배경

ⓓ 애련설 중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 - [불염], [향원익청], [군자]

■ 남송시대(1127~1279 A.D)

자연미와 기후가 이상적인 고장

작은 정원이라도 한 두개의 태호석에 의해 이루어진 석가산을 주로 하는 정원이 많음

1) 경원에 관련된 문헌

㉠ 주밀의 [오홍원림기] : 오흥은 태호의 남쪽에 있는 도시로서, 많은 명원이 있었다.

오흥지방의 명원은 태호가 가까이 있어서 태호석이 정원재료로 많이 이용되었다.

원림기에는 명원 33개소를 소개하고 있었다.

㉡ 시목의 [사문유취] : 매화,계수, 목서화, 난, 국화, 구기, 모란, 작약, 도화, 내금화, 행화, 이화, 자미화,

해당, 도미화, 훤화, 하화, 석류,부용화,수선화 등 34종의 화훼에 관한 기록

2) 화목아칭 : “송”대엔 꽃의 격에 따라 어울리게 아칭을 부여함

예) 증단백의 [花十友], 장민숙의 [花十二客]

3) 장모 : 궁정의 조경사

■ 원시대(1271~1368)

북해공원에 설치된 백탑 - 네팔의 공예가가 설계, 건축(티베트식의 라마탑)

ㆍ소주의 [사자림] : 불교의 사자자리에서 딴 이름. 조경가 **예찬**과 화가, 시인인 **주덕윤**이 공동 설계. 이 곳의

석가산(태호석으로 만든)은 아주 유명함. 죽림과 괴석 (소주의 2대 명원 : **사자림, 졸정원**)

(3) 근세 전기의 조경문화

■ 명시대(1368~1644 A.D)

① 시대배경

㉠ 농업발달. 조경기풍의 부흥.

㉡ 북경, 남경, 소주 일대에 집중된 조경활동.

ⓐ 북경 : 도성. 귀족관료들의 정원. 물과 인접한 포자강 일대에 많이 조성됨

【예. 작원(勺園), 이원(李園), 청화원(淸華園), 양원(梁園)】

ⓑ 남경 : 부흥도시, 개인정원(사가정원)

ⓒ 소주 : 농업 매우 발달, 가장 부유한 지구, 정원 열기 고조. 최초로 도시에 정원이 건조됨.

※소주 현존의 고전 원림 – 90%가 사가원림

창랑정(북송중엽), 사자림(원대 말), 예포\*유원\*졸정원\*서원\*방초원\*흡은원(명대 중엽~명대 말 사이에

창건)

㉢ 문인과 화가가 직접 조경활동에 참여

【대표: 계성( 풍부한 조경경험과 높은 학문과 회화, 소양을 가춘 인물로서 「원야」라는 중국 역대 유일의

조경전문서를 쓴 조경전문가】

② 황가원림

ⓐ 어화원 : 건축물, 정원 모두 대칭 비치, 석가산과 동굴 있음

ⓑ 경산 : 자금성밖 정북쪽에 위치.

원시대에는 “청산”, 명시대에는“만세산”이라고 부름. 풍수설에 따라 5개의 봉우리를 만들고 각 정상에

정자를 세움. 이 산에 이르면 자금성은 물론 태액지와 북경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③ 사가원림

특히 졸정원(拙政園)과 유원(留園)은 중국 정원 예술의 우수한 유적으로 현재 국무원 공포의 국가적

문물보호 대상지이다.

㉠ 작원 : 미만종이 북경에 조영.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작원수계도]로 짐작. 물을 교묘히 이용하여 큰

못을 만들고 물가에는 버드나무를 심고 물속에는 백련을 심고 곳곳에 다리 가설.

곳곳에 정자 세워 여러 곳으로부터 경관 조망하도록 함. 태호석 이용한 가산 축조

㉡ 졸정원(拙政園) : 소주 동북쪽에 위치

중국의 지방정원은 명대로부터 명원이 많은 강남, 소주가 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소주성 내의 졸정원은 16세기 중엽 명대의 관료 **왕헌신**이 만들었고, 후에 관서와 관료지주들의 손에

넘어가 몇 번의 개수가 있었으나, 현재는 밝은 자연풍경을 구비한 명대를 대표하는 정원으로

공개되어있다. 이곳은 5분의 3을 점하는 지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건물은 아름다우며

“시정화의(詩情畵意)”에 가득 차 있다.

소주 동북쪽에 위치해 있고, 명 정덕(鄭德) 4년(1509년)에 지어졌다. 왕헌신은 정원을 짓고, 진대의 시

한 구절 ‘졸자지위정(拙者之为政: 어리석은 자가 정치를 한다)’에서 본따 이 정원을 졸정원(拙政园)이라

이름지었다.

동부,서부,중앙부로 나뉘어짐 : 왕헌신의 아들(도박꾼)이 상속받자마자 세명에게 넘김… 지금은 정부소유

▶ 졸정원 특징

ⓐ 졸정원의 특징은 60% 이상이 물인 그 수경에 있다 (3개의 섬과 그것을 연결하는 곡교)

ⓑ 수면에 면한 건축물은 다리와 회랑으로 연결

ⓒ 대비, 대경, 차경, 억경 등 다양한 시선 기법 연출

ⓓ 억경(抑景) ; 원경을 한눈에 볼 수 없도록 한 다음 갑자기 넓은 공간을 드러냄. 대소(大小)의

공간의 대비효과를 극대화함. 원향당 주위에서 억경의 연출을 볼 수 있다.

ⓔ 배식 : 백피송, 대나무, 벽오동, 감귤, 연꽃, 수양버들, 갈대, 만다라화(춘(椿): 동백나무의 별명), 목단,

작약, 해당화, 백목련 등과 많은 고수(古樹)들이 심겨져 있다.

ⓕ 동부, 서부, 중앙부로 나뉘어져 있음

ⓖ 오죽유거 – 네면 모두 뚫려 있어 모두 차경(인차), 건축물 밖에서 건축물을 투과한 차경

▶ 졸정원 내의 건축물 명칭과 특징(동부\_중앙부\_서부\_중앙부\_동부의 동선)P609

1) 동부

2) 중앙부

ⓐ 오죽유거 : 보형지붕의 사방에 원형의 입수가 열린 건물, 사방의 원형문으로 바깥의 대나무와

벽오동이 보이는데 액자의 그림처럼 보임

ⓑ 향주 : 못에 면하여 동쪽에 위치(=한선), 화방(지붕다린 배)과 비슷한 배모양의 건축물

내부의 상랑에 **문징명**의 ‘향주’라는 편액과 대란의 경치가 투명하게 보이는 큰 거울이

있어 그 허실을 대비시킨 차경수법은 보는 이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 소비홍 : **소주유일이 낭교**(지붕이 날린 복도식의 다리)

ⓓ 원향당 : 중앙부 주요 건축물, 애련설에서 유래, 백목련과 건축물의 조화, 억경

ⓔ 비파원 : 園중 園

3)서부

ⓐ 도영루 : 수랑과 소사(낚시터), 연못 북쪽 끝에 위치

ⓑ여수동좌헌 : 선정(扇亭) \_ 창덕궁의 관람정, 사자림의 선자정

㉢ 유원(留園)

1525년에 만들어져 조성 당시에는 동원(東園)이라고 불렸으나 몇 번의 개축을 거치면서 청대에 이르러

유원이라는 이름으로 굳혀졌다.

ⓐ 소주의 전형적인 명원으로 면적은 약 20,000㎡.

ⓑ 명대 중기 궁료의 정원으로 조성. “한벽산장”“유원”이라 칭했음.

ⓒ 광대하고 화려한 건축물이 소주의 원들 중 가장 많음.

ⓓ 허(虛)와 실(實), 명(明)과 암(暗) 등의 다양한 공간 처리 기법

ⓔ 유기적으로 관계있는 건축 배치수법

ⓕ **관운봉 : 소주 정원 최대의 태호석**

ⓖ 원내의 장랑(長廊)은 약 700m인데 건물 사이를 연결시킨다. 장랑을 거닐며 정원 감상.

장랑의 벽면에 화창(花窓), 공창, 누창이 나 있는데 이를 통해 밖의 경관 감상

장랑의 곡절에 의한 좌우의 약간의 소공간에도 죽총, 화목, 경석이 배치

▶유원(留園) 공간구성

볼만 한 것이 있는 본원은 원래 「환벽장」이 있던 중앙부와 후에 증설된 동부, 북부, 서부로 나눌 수

있다. 정원의 핵심은 중앙부와 동부이다.

ⓐ 중앙부 : 건축, 축산, 연지로 구성 ⓑ 동부 : 건축, 곡랑, 중정으로 구성

ⓒ 북부 : 전원풍경 연출 ⓓ 서부 : 자연의 산림으로 구성

▶ 정원 세부 계획

(번호의 순서대로 정원을 감상하게 됨. 즉 중앙부 → 동부 → 북부 → 서부 → 북부(분재원) →

중앙부(원취각) → 동부의 임천기석지관의 남정(南庭)으로부터 직접 주차장으로 나감.)

ⓐ 중앙부 : 건축, 축산, 연지로 구성

- 고목교가(古木交柯) : 대문을 들어서 시계가 좁은 굴절된 낭하를 빠져나가 위치한 중정의 앞이

고목교가

누창(漏窓)과 공창(空窓)으로 보이는 정원이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 함벽산방(涵碧汕房) : 중앙부의 주요건축물. 남쪽 중정에는 모란대와 석조가 있다.

- 원취각(遠翠閣) : 주랑의 종점에 위치. 동북 모퉁이 앞의 봉석과 축산 뒤에 이어지는 원로는

황색의 난석을 삽입하여 포장모양(화가포지 花街鋪地)이 볼만하다.

- 곡계루(曲谿樓) : 못에 면한 서벽에는 공창과 누창이 일렬로 연결되어 통행인으로 하여금 액자에

넣은 그림과 같은 풍경을 보여줌

(광경(框景) : 그림을 거는 액자처럼 실제의 자연풍경을 아름다운 형상의 문틀과 창틀에 집어넣어

그림처럼 보이게 하는 처리수법) 누각의 길이는 10m, 너비는 3m.

- 오봉선관(五峰仙館) : 각종 향락생활의 중심지. 집 5 칸의 박공모양의 지붕. 전면의 중정에 12개의

동물의 형을 본 딴 웅대한 태호석이 있다.

ⓑ 동부 : 건축, 곡랑, 중정으로 구성

- 읍봉헌(揖峯軒) : 오봉선관 동측. 석림소원(石林小院)이라고도 함. 앞의 중정에 호석봉 회랑이 둘러

쌓임. 소공간은 석순, 청죽, 파초 등이 식재됨. 이 주변 공간의 대소(大小), 명암(明暗), 이합(離合),

고저(高低), 출입(出入) 등의 대비효과는 건축과 중정을 특색있고 변화있는 공간으로 느끼게 함.

- 관운봉(冠雲峰) ; 높이 6.5 m 약 5톤 가량의 태호석. 추(皺:주름), 투(透:구멍), 누(漏:틈),

수(瘦:마르다, 여위다, 뒤틀리다)의 특색을 겸비한 태호석의 왕자. 소주 정원 중 최대의 크기이고

명대의 것이다.

하나의 자연석이 아니라 석공이 태호변에서 크고 작은 돌조각을 모아 조각하여 이어붙인

것이라고 한다.

☞유원의 삼봉(三峰) : 첩석봉, 서운봉, 태동봉

④ 경원에 관련된 문헌

㉠ 왕세정의 [유구릉제원기] : 금릉(남경)은 명 시대의 수도로 명원이 많았다. 여기에 367개의 원이

소개되고 있다.

㉡ 계성의 [원야] : 중국 최초의 가장 체계적인 원림조성에 관한 책자

㉢ 문진형의 [長物志장물지] : 자는 계미, 계성과 같은 시대. 같은 소주 지방 출신

12부로 구성됨. 조경분야와 관련된 화목 수석에 대해 설명

㉣ 육소형의 [경] : 취고당검소에 실려 있는 산거생활을 수필로 적은 것의 일부이다.

예) 다락에서 독서를 하는 다섯 가지 좋은 점

※ 임원경제지의 이운지 편에 문진형의 [장물지], 고렴의 [준생팔전], 진계유의 [암서유사]의 내용이 소개됨 – 당시엔 [원야]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관계로 서유구에 의해 소개되지 못했음.

○ 계성의 [원야] : 중국 최초의 가장 체계적인 원림조성에 관한 책자

\* 계성의 철학 + 시공방법 + 조원가의 역할등이 나타남

\* 원야의 구성 : 택원(宅園)과 별장 건축의 원리 및 기법에 관하여 세권의 분량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흥조론(興造論)과 원설(園說)로 나누어져 있고, 원설은 다시 열한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1. 흥조론(興造論) : 이 책을 쓰는 목적을 서술함. 계성은 원림 조성의 특징은 바로 지형의 특성에

따라 알맞게 조성하되 , 그 배치를 융통성 있게 해야 한다(인지제의(因地制宜))고 강조함.

2. 원설(園說) : 이 책 전체의 중심부분. 계성은 중국원림예술의 특징을 ‘원림이 비록 인간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완연히 자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느끼게 한다’고

개괄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그는 원림조경을 의경(意境)의 향수(享受)라는 점과 연계시켜

이해하고 있으며 아울러 중국 양자강 이남 원림의 특징인 시정화의(詩情畵意)와

정경교융(情景交融)을 잘 묘사하고 있다. 원설의 11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상지(相地) : 지형에 따른 원림 대지의 관찰과 선택에 관한 설명. 음양설과 결부되어 길흉을 점침

② 입기(立基) : 원림 총 평면의 배치에 대해 설명. 주요 건축물과 가산(假山) 등이 총 평면 설계

중에서 차지하는 순서에 대한 고려, 건축물 평면의 요구, 적당한 위치 및 지형에

따른 적합한 변화 등에 대해 서술.

③ 옥우(屋宇) : 네 가지 방향으로 원림 건축물을 논술.

④ 장절(裝折) : 원림 건축물의 장수(裝修: 꾸미고 고치는 일)에 관한 문제를 논함.

병문(屛門)과 앙진(仰塵), 창호, 난간 등의 소목작(小木作)에 관한 내용도 포괄함.

‘다양성 가운데서의 통일’이라는 원칙을 제시.

⑤ 난간(欄干) : 난간 계획에 대한 도면으로 구성. 난간은 자유로우며 문양이 단순하고 간편한

것이 좋다고 기록함.

⑥ 문창(門窓) : ‘문창’은 전적으로 벽돌담 위의 장식용 창문을 가르킴. 갖가지 그림으로 설명

⑦ 담장(=장원牆垣) : 담 만드는 법, 쌓는 법 설명. 장원(牆垣)은 중간에 창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원림의 경물을 분리시키거나 투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⑧ 포지(鋪地) : 포장. 즉 원림의 바닥깔기에 대한 설명. 자갈길과 조약돌길 등 각종 바닥깔기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됨. – 설계가 잘되면 폐물도 버리지 않을 수 있다.

⑨ 철산(掇山) : 가산수법 중 하나. 가산의 시공방법과 요점에 관한 논술. 가산 조성에는 반드시

실제 산수의 특징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한다고 주장. 즉, ‘실제 산의 의경으로

가산을 만들어야 만들어진 가산이 실제 산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연 속 산악의 결에 대한 산수화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에 따라 첩산 하자는

주장을 폄.

※ 조그만 가산을 만들때는 예운림의 화의를, 큰 가산을 만들때는 황자구의 필법을 본받는다.

⑩ 선석(選石) : 철산이나 천석과는 달리 돌 자체를 애완하고 임목사이에 배치하여 관상하기에

알맞은 돌선정. 계성은 가산에 사용되는 돌의 선택에 있어서 당시의 태호석에 대한

지나친 신뢰의 폐단을 없애려고 함.

⑪ 차경(借景) : 차경은 중국 고대 원림에서부터 이미 사용되어 왔는데, 계성은 이 방법을 이론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림.

원차(遠借:원경 이용), 인차(隣借:인접한 부분의 경관을 빌려쓰는 것),

앙차(仰借:높은 산악의 경치를 빌어쓰는 것),

부차(俯借:낮은 곳에 전개되는 경치를 빌려 쓰는것),

응시이차(應時而借)에 관한 논의.

★ 원림 미학 – 자연스러움

① 자연을 그대로 이용하는 자연재현

② 하늘이 만든 것과 같은 선경(仙境)

③ 원림 안에 우주의 질서를 담는 호중천지

④ 원림에서 시와 그림의 정서를 느낄수 있는 시정화의

→ 원림에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게 된 배경 : 은일사상과 문인화의 영향

★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기 위한 기법

① 인지제의(因地制宜) – 땅의 높낮이나 모양의 단정함에 따름

② 차경(借景)

③ 숨김과 드러냄(藏과 露) – 식재, 가산, 건축물, 창호, 담장을 이용하여 심리적 공간의 거리감을

증가시킴

④ 직과 곡(直과 曲) – 곡교, 곡랑: 관람자의 시선방향을 다양하게 만들어 여러 각도로 감상

곡경 : 가산이 밀집되어 있는 사이로 난 굽은 길

곡수, 동구, 산석, 벽등을 이용

⑤ 비움과 채움 (虗와 實) – 누창 중 뚫린곳(허) 프레임(실), 물(허) 가산(실), 건물의 유(실) 무(허)

⑥ 가지런하지 않음 (참치부제(參差不齊)) – 식재, 건물, 가산

(4) 근세 후기의 조경문화

■ 청시대(1616~1912 A.D)

① 시대배경

㉠ 불교 쇠약, 도교가 하층 민중에 확산, 라마교, 회교, 기독교 등이 퍼짐

㉡ 마테오릿치 : 선교활동, 천문, 역법 등의 서양 학술과 기술 전파

㉢ 카스티리요네 : 미술가, 건축가, 이궁인 [원명원]에 서양식 조경기법 도입.

프랑스의 베누아는 이 곳의 분수를 설계(동양의 베르사이유)

㉣ 중국의 조경사상 가장 융성하게 발달한 시기

㉤ 청나라 조경의 특징

ⓐ 각지의 이름난 정원은 명승지에 위치(집금식)

ⓑ 집금식: 전 정원을 나누어 경관을 구분. 약간의 경치 구역을 이룸

ⓒ 경(景) ; 집금식 포국의 대형 황가 원유의 채용은 ‘경(景)“의 위치 선택이 ”보이는 것 “과 ”보는 것’,

이 두가지 요소의 제약을 받고있다. (예. 피서산장의 명승 36경)

**\* 3산 5원 탄생 : 향산의 정의원, 옥천산의 정명원, 만수산의 이화원, 창춘원, 원명원**

② 금원

㉠ 건륭화원(자금성내) : [영수화원]이라고도 함. 괴석으로 이루어진 입체공간이며 전체적으로 리듬감을

줌. 5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계단식 화원

ⓐ 제1단 : 석가산 중심. 5개의 정자

ⓑ 제2단 : 수초당 중심. 회랑 안에 꽃나무 배치

ⓒ 제3단 : 단 전체에 산석을 배치. 심산의 느낌

ⓓ 제4단 : 벽라정은 괴석으로 둘러 싸여 있다.

ⓔ 제5단 : 석가산 위에 8각문 달린 죽향관, 권근제

㉡ 서원(西苑) : 금, 원, 명, 청 4대에 걸쳐 조영된 외원으로 북해, 중해, 남해로 이루어짐

ⓐ 북해 : 현재 남아 있는 경원중 가장 오래됨. 봉래도를 상징한 경화도와 티벳식 라마 백탑이 있다.

ⓑ 중해 : 근정전 등의 궁전이 있다.

ⓒ 남해 : [방장도]가 있고 섬 주변에 태호석의 석가산이 있다.

자금성 – 명과 청의 궁궐 (궁궐세계최대규모) , 1987년 유네스코등재

③ 황가의 정원 : 수량과 규모상 명나라의 것을 초월 → 중국역사상 가장 융성한 발달시기

열하이궁 승덕, 삼산오원

현재 남아 있는 것은 [피서산장]과 [이화원]이다.

「열하이궁(熱河離宮) 승덕(承德)」을 수리하여 피서산장으로 만듦.

사가정원 모방하여 황가정원을 꾸미기도 하였다.

㉠ 향산정 명원 : 향산사에 딴 이름. 가을 풍경

㉡ 원명원(圓明園) : 지금의 북경대학 북쪽에 인접. 서양식(프랑스식) 경원을 꾸밈. 바로크 양식의 건축물.

직선적인 네모의 구획 안에 호수를 파고 수로를 만들었으며 축산에 나무를 심어 꾸민

완전한 인공적 정원. 40경(景).매 경(景)마다 모두 독특한 주제가 있고 의경과 정취가

있다. 1860년 영국\*프랑스 침략국에 의해 대부분 소실됨.

항주의 서호 10경이 모두 갖추어짐

㉢ 이화원 : 전체의 4분의3이 수면이며 원의 중심은 만수산, 엄청난 규모의 원지, 웅대한 자연과

건조물의 조화와 대비는 청대 왕궁 정원의 예술적 성과를 대표

▶ 이화원의 특징

• 크게 만수산과 곤명호로 구성됨.

• 곤명호 : 200ha가 넘는 광대한 호수. 반은 자연이고 반은 인공의 호수.

• 만수산 : 옹산을 개조하여 만듦. 42 ha의 크기. 많은 전사(殿舍)와 누정(樓亭)이 배치됨.

• 해취원 : 이화원 정원의 정수. 정원 중의 정원으로 극찬되는 곳. 황제가 가장 애호한 강남풍의

정원구조.

• 17연공 아치교 : 17개의 아치로 만들어진 위로 배가 볼록한 다리. 수면에 아치가 비치면 매우

아름답다.

㉣ 열하 피서 산장 : 승덕에 있는 황제의 여름 별장. → 열하행궁으로 불림

원내의 4/5는 기복이 심한 산과 구릉 수림 총지로, 동남으로 작은 평지와 천(泉)을

모음 호수가 있고, 섬이나 제방 가까이는 건축군이 산을 배경으로 송백이 숲속에

조화롭게 분포.

\*현존하는 가장 큰 규모의 청대 황가원림

\*규모 : 5.64ha(이화원의 2배) -호수의 규모는 이화원 곤명호의 1/4가량

\*특징 : 남방의 명승 건축을 모방, 소나무의 정연한 식재, 산장안의 다수의 사묘 등 건물에

단청하지 않음. 강남민가주택과 사가원림의 풍모를 짙게 풍김(회색벽돌사용)

\*구성 : 9개호수, 10개섬, 현재 7개호수와 8개섬만 남음

▶ 각 지방의 명원

★ 양주지방의 명원 : 건륭시대 이두의 [양주 화방록 18권]에 명원이 소개

양주지방은 강남의 자연적인 수려한 경관으로 많은 명원이 배출

★ 소주지방의 명원 : 송-청에 이르기까지 많은 명원이 있다.

1. 창랑정 (송) 10,000m2 소주의 가장 오래된 정원,소순흠

2. 사자림,원,10,000m2 기암괴석, 부채꼴정자(선자정),상률

3. 졸정원 명 40,000m2 화려한 포장, 원림의 3/5이 물, 여수동좌헌,왕헌신

4. 유원 명 7,000m2 방지 안에 소봉래라는 섬, 관운봉,서운봉,수운봉-삼봉 위치,소경서

5. 이원 명 1,600m2 화방재(물이 있는 배)겹으로 된 복도, 큰거울, 축산, 석실, 강력한 대비, 고문빈

6. 예포 명말청초 1,000m2,양실절

7. 우원 청 2,400m2,심병성

8. 환수산장 청 200m2 호석축산이 소주제일,과유랑

9. 망사원 청 동(주택), 서(내원), 중(주정원)으로 3분,송종원

10. 곡원 청,유월

※ 양주와 소주의 정원의 차이

소주의 정원은 성내의 제한된 구획 안에 축조되었기 때문에 전면은 도로와 접하고 후면은 내(淶)로

경계되어지며 양쪽은 인가와 인접해야 하는 입지조건하에 조성되었다.

★ 상해의 예원 : 소호대라는 극장

\* 강남의 4대 태호석 - 소주의 서운봉, - 유원의 관운봉, - 예원의 옥령용, - 항주 화포의 추운봉

▶ 역대 저명한 저술서 및 원림조경가

★ 저술서

1. 사마상여의 상림부 (한 초기) 2. 사령운의 산거부 (남북조)

3. 양현지의 낙양가람기 (북위) 4. 백거이의 태호석기 (당)

5. 이격비의 낙양명원기 (북송) 6. 왕세정의 유금릉제원기 (명)

7. 계성의 원야 (명) 8. 문진형의 장물지 (명)

9. 이두의 양주화방록 (청) : 강남, 양주 지방의 명원 소개

10. 이어의 한정우기(청)

★ 원림조경가

당 – 염립덕 송 – 주면 원 – 예운림(예찬)

명 – 미만종, 문진향, 계성, 청의석도, 이어, 장연(회화와 석가산에 능)

청 – 과유량

▶ 원림 공간의 처리수법

⑴ 차경(借景) : 차경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명말의 조원가 계성이 쓴 <원야>에는 원차(遠借),

인차(隣借), 앙차(仰借), 부차(俯借), 응시이차(應時而借) 등의 내용이 있다.

① 원차 : 원림 외부의 멀리 떨어져있는 경물을 내부로 끌여 들여 전체 경관의 한 조성부분으로 삼는

것(사가원림에서는 누각(樓閣)을 지어 이용)

② 인차 : 인접한 경관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차경의 경물이 높은 곳에 있으면 은폐의 방식을 이용하고

낮은 곳에 있으면 연결시켜 이어지게 함으로서 모두 원림 내부의 경관을 풍부하게 한다.

③ 부차 : 원림 내 높은 곳에서 낮은 지역을 내려다 보는 차경

④ 앙차 : 원림 내 낮은 곳에서 외부에 있는 산봉우리 또는 절벽, 고탑 등을 올려 바라보는 차경

⑤ 응시이차 : 일년 중 특정한 계절 혹은 특정한 날의 순간적인 기상변화, 식물의 변화 등을 차경하는

수법

⑵ 장경(障景)

① 장경의 처리방식으로 원림 공간의 경관을 분리함

② 원중지원(園中之園)의 조성에 주로 이 수법을 이용하여 전체 원림을 서로 다른 취향의 경관으로

나눈다.

③ 토산(土山)이나 석산(石山)같은 지세의 기복을 이용하기도 하고 건물이나 담장, 회랑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형, 식물, 건물을 종합하여 경관의 시선을 차단한다.

④ 경관의 분리 외에도 문과 담을 이용하여 변경을 감춤으로서 유람자로 하여금 원림공간의 심원함을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무궁무진한 흥밋거리를 유지시킨다.

⑤ 장경에는 허장과 실장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 허장(虛障) : 막은 듯하면서 막지 않은 침투적인 관계로 처리. 서로 유사한 경관 혹은 서로

바라보면서 배경이 되는 경관을 나누는데 이용된다. 침투의 정도는 누창(漏窓)의 수량과

화문(花紋)의 번잡하고 간결함에 따라 조절된다.

㉡ 실장(實障) : 칸막이 성격의 장경으로 한 면의 경관시선과 유람노선을 차단하여 완전히 감싸지만 그

사이에 반드시 약간의 빈틈을 남겨두어 소통을 위한 유도의 지점으로 삼는다.

⑶ 억경(抑景)

① 먼저 살짝 감추고 나중에 갑자기 드러나게 하는 수법

② 먼저 원림 전체 공간을 한눈에 다 볼 수 없게 만든 다음 구불구불한 길을 통하여 한쪽 부분을 살짝

열어두어 기대감과 호기심으로 마음이 한창 절정에 달하도록 하는 수법인데,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한

굽이를 돌면 눈앞이 확 트이며 모든 경관을 유람객 앞에 펼쳐 놓아 경탄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③ 당지계(唐志契)의 <회사미언(繪事微言)> : “만약 드러내되 감추지 않으면 천박한 것이다.”

④ 가산으로 처리한 산억(山抑), 구불구불한 곡랑을 통해서 이루어진 곡억(曲抑), 식물을 이용한

나무숲으로 조성된 수억(樹抑) 등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⑤ 이화원의 곤명호 진입공간이 억경의 방법을 취함

⑥ 입구의 영벽

⑷ 협경(狹景)

① 좁은 통로를 가면서 경관을 형성함.

② 좌우의 단조로운 풍경을 수목이나 흙산, 건축물 들을 이용하여 병풍처럼 만들고 가운데를 남겨 그림

같은 원경에 부합하도록 한다.

③ 북경 이화원의 뒤쪽 소주하(蘇州河)에서 배를 타고 가다보면 멀리 소주교를 중심으로 주요 경관이

양쪽 하안(河岸)의 기복을 이룬 흙산과 아름다운 나무숲 사이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색을

구성하게 하는데 이것이 협경이다.

⑸ 대경(對景)

① 경물이 서로 호응관계를 갖는 것으로 관건은 “대(對) :짝을 이룸”를 형성하는데 있다.

② 주요 관상점과 유람노선의 진행방향에 경물을 배치하여 각종의 대경을 만든다.

③ 장경과 상반된 연결요소로서 긴장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데, 긴밀한 대응관계와 느슨한 대응관계로

구분.

㉠ 긴밀한 대응관계 : 명확하고 집중된 호응관계를 형성. 대개는 축선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정(靜)적인

상황 연출.

예1) 청당 건물의 내부에서 연못의 수면을 사이에 두고 바라다 보는 건너편에 놓여진 산수의

자연공간과 같은 경관.

예2) 청당 앞뒤에 조성된 정원 내부에 심어진 나무나 가산(假山)

㉡ 느슨한 대응관계 : 도로나 회랑의 진행방향 혹은 문의 입구, 전환점 등 변환의 공간에서 보이는

경물에 의해 만들어짐.

배치가 자유롭고 굴곡진 사가원림은 물론 황가원림에서도 자주 이용됨. 발걸음의 움직임에 따라

경물이 달라지므로 동태적이고 변화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며 광경과 더불어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더욱 돋보이게 한다.

⑹ 첨경(添景)

북경 이화원의 곤명호 남쪽에 있는 섬안의 버드나무 아래에 서서 멀리 바라다 보이는 만수산을 감상할

때, 대개는 유람자의 시야 앞에 드리워진 버드나무 가지를 장식으로 삼아 생동적으로 바라보는데 만약

이러한 버드나무가 없이 탁 트인 공간 사이로 만수산이 보인다면 그 앞에 펼쳐진 것은 단지 단조로운

곤명호의 수면 뿐일 것이다. 즉 원경, 중경, 근경과 같은 공간의 심도를 구분할 수 없는 매우 단조로운

경관이 되고 마는데, 경관의 심도를 주는 이러한 수법을 첨경이라고 한다. 첨경에는 교목을 많이

사용하는데 꽃잎이 곱고 체형이 커야 한다.

⑺ 광경(框景)

그림을 거는 액자처럼 아름다운 형상의 문틀과 창틀, 그리고 교목의 수관이 만들어낸 틀 속에 실제의

자연풍경을 집어넣어 유람객으로 하여금 현실풍경이 종이 위에 그려진 그림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자연미를 예술미로 승화)

⑻ 누경(漏景)

① 광경이 한 단계 발전한 수법

② 누창을 통해 보는 경관

- 누창(漏窓) : 창문 면에 다양한 도안이나 문양을 취해서 만든 창 (유리가 없음)

- 공창(空窓) : 구멍이 뚫려 있는 창 (유리가 없음)

③ 울타리 담이나 회랑의 측면에 다양한 형태의 창문을 통해 원림 밖의 경관을 투시할 수 있도록 처리.

▶ 중국정원의 세부적인 특징

① 포지 : 구석수법. 한나라 때부터 부채꼴 모양포장 등 다양

② 누창 : 바람이 자유스럽게 통과. 화창의 일종. (유리가 없다.)

정원에 면한 화랑이나 연못이 있는 건물에 주로 이용

③ 화창 : 목재의 장식, 유리 설치 주택에서 방의 장식용으로 이용.

실내에서 바깥을 보기 위해 중앙에 무늬 유리를 끼워 시계를 확보함.

④ 공창 : 정원 회랑. 누에 설치. (뇌문 장식이나 유리가 없다.)

정원을 내다보기 위한 액자 같은 역할. 양주와 향주에서 보임. 소주에는 없다

⑤ 동문 : 정원 담장에 설치. 여러 형태 가짐. 주기능은 통과 역할. 혈문 이라고도 함.

원형일 때 특별히 원동문이라 함.

⑥ 회랑 : 정원에서 건물 간을 연결. 정원 구분 위해 사용. 직선적인 것은 거의 없다.

복랑형, 벽이 없는 것, 복도식, 이중형 둥 여러가지 형태

⑦ 橋(다리) : 거의 多曲橋. 강남에는 거의 曲橋， 북쪽은 아치교. 예) 이화원의 17공교

⑧ 태호석 : 태호라는 호수에서 채굴된 돌로 석회석의 일종.

화석강이라는 예인선으로 운반(비용이 많이 들어 민심의 반감을 삼).

태호석을 경석으로 많이 이용.

구멍이 많고 표면에 층이 있을 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됨. 북송 때에 많이 사용

⑨ 석순 : 대나무순 처럼 만들어진 돌. 출입구나 소규모 정원에 이용.

일반적으로 둥글며 마마자국이 있는 것이 좋다.

대나무 사이에 많이 이용되었고 태호석의 사용과도 관련이 있다

▶ 한국과 중국원림설계의 특성비교 (자연과의 관계 맺음)

|  |  |
| --- | --- |
| 한 국 | 중 국 |
| 구릉지  자연과의 협력, 동화  ‘자연을 울타리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다.’ | 평지  자연과의 경쟁  ‘비록 사람이 만들었기는 하나, 마치 하늘이  만들어 놓은 듯이 느끼게 한다.’ |
| 최대한 인위를 억제한다.  금수강산인 말과 같이 주변경관이 수려해서 굳이 좁은 뜰에  장식적인 기교처리 불필요 | 모든 것을 만든다.  넓은 평지의 지루함  좁은 뜰에 다양한 경관을 연출해 놓아 일보 일경을 표현 |
| 인위적 형태로 만든다.  조화와 대비의 구성기법  연못이나 누각, 화단 : 직선처리해 자연과의 대비효과  (세연정지) | 자연형태 그대로 만든다.  2차원의 중국회화를 3차원으로 재현  건축요소와 자연요소(물, 산, 돌)사용 |
| 빌려서 취함 (차경) | 똑같이 취함 (사경에 가까움) |
| 저절로 다양하게 보인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절이 지남에 따라 자연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됨  형태는 가장 단순, 자연에 의지 | 다양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원림에 만들어진 자연을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보기 위해  형태상의 변화를 줌  → 누창, 공창, 동문 등 이용 |